

요약 및 정책건의

I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‘저탄소 녹색 경제성장’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
 - 이는 과거 경제성장 모델과 그 결과로 나타난 지구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과 아울러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사
-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모델은 ‘저탄소 녹색성장’의 개념으로 볼 때 친환경적 의미가 상당히 퇴색
- 이 연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한 기존 관광산업의 성장모델을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맞춰 관광산업의 새롭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

II.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

1. 지구환경 문제는 경제성장 모델과 밀접한 관계

- 경제학 사조의 양대 산맥은 서로 대립된 경제성장 모델을 형성
 - 주류 경제학파들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주도
 - 양대 경제학파인 자유주의학과와 케인즈학과는 각각 생산중심주의(productivism)와 소비중심주의(consumerism)라는 경제성장 모델을 형성하면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주도

- 생산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문제의 근원
-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경제성장 모델의 접근방식 차이
 - 신자유주의학과파의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사후 저감방식 환경대책에 중점
 - 생산주의는 생산 확대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저감하는 대책 (end-of-pipe approach) 위주로 환경문제 대응
 - 신케인즈학과(네오케인지언)의 소비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사전예방방식 (upstream approach) 환경대책에 초점
 - 소비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되 기존의 소비확대 보다는 환경문제 발생을 극소화하는 새로운 소비 창출을 유도
 - 기존 경제성장 모델의 틀을 벗어나 환경문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 과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가로 유효 수요와 소비를 창출

〈표 1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 패러다임 변화

Economy	Paradigm shift	
	1980s - 2008(금융위기)	→ 금융위기 이후
Mainstream	Neo-classical(neoliberalism)	Neo-Keynesian
Issues	- 보이지 않는 손 → 시장주의 - 자유방임, 작은정부-큰시장 - 통화주의 - 민영화, 규제완화, 세금인하	- 정부의 시장개입 - 재정, 화폐공급 등 유동성 조절로 경기 변동 대처 - 국유화, 공영화
Growth model	생산중심(Productivism) - 생산극대화도 수요를 창출 - 기업의 생산확대로 경제성장(공급경제학)	수요중심(Consumerism) - 한계수요 확대도 경제성장 - 수요관리로 경제변동조절(수요경제학)
Actions	- 통화금리정책 (저금리 → 기업투자증가 → 고용확대)	- 재정정책 → 유효수요 증대 - 불경기에 적자재정

2.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

- 환경주의는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
 - 환경문제는 공급 위주 양적 경제성장 추구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의 실패로 대두
 - 초기 환경주의(environmentalism)는 고비용(자원과 환경)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고갈되어온 우리 생활권 내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보전과 생활권 밖의 생태계 보전에 관심
 - 환경주의는 1980년대 생산공급 중심의 양적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회의와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적 조류가 맞물리면서 시민단체(NGO)들 중심의 환경운동이 발단
-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경주의 패러다임도 변화
 - 환경이슈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는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에 기인
 - 신자유주의학파의 공급중심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네오케인지언의 소비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환경 분야 패러다임도 변모
 - 후기 환경주의(post-environmentalism)의 키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
 -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는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바꾸고,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효수요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적 방향
 - 그 예로 초기 환경주의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엔진의 연료효율과 배기가스 저감기술에 관심을 두었다면 후기 환경주의는 새로운 방식의 전기차나 연료전지차와 같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중시
 - 초기 환경주의 때와는 다르게 후기 환경주의 때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환경문제를 주도

〈표 2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 패러다임 변화

Environment	Paradigm shift	
	1980s - 2008(금융위기)	금융위기 이후
Mainstream	Environmentalism	Post-environmentalism
Issues	- Anti-pollution - Eco-friendly - Eco-economy	- Anti-climate change - Earth-friendly - Low-carbon economy
Motive	Market failure + 생산확대 - ecological sustainability - social justice - Participate democracy - Anti-globalization	Market failure + 수요창출 - Effective demand 확대 - 시장개척 → 수요/투자확대 : Hard-infra → Soft-infra (저탄소 환경기술)
Initiative	Grassroot, NGO	정부 & 기업(제조, 금융, 서비스 등 다방면)
Actions	- 친환경(eco-friendly) 생산 - 에너지 절약 ex) 오염정화, 연료절감, 유기농재배	- 저탄소 녹색제도/경영/소비 - 대체&신재생에너지, 오염방지 ex) 전기차, 태양열, 풍력

Ⅲ.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 필요성

1.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신호

○ 관광산업의 친환경적 의미가 퇴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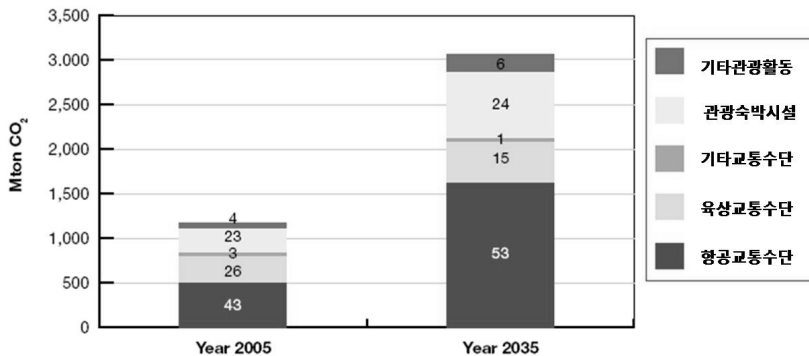
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의 관광산업은 오염배출 산업

- 과거 관광산업은 ‘굴뚝이 없는 공장’이라 불리우며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

- 그러나 저탄소 녹색 패러다임의 기준으로 볼 때 기존 관광산업은 대부분 에너지 집약적이고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으로 전략

— 관광산업의 경우 주로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배출

- UNWTO/UNEP/WMO의 2008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관광산업이 배출하는 CO₂ 양은 전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5%를 차지하며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향후 10년마다 그 비율이 두 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



자료: UNWTO, 2008, "Climate Change and Tourism".

〈그림 1〉 세계관광산업의 CO₂ 배출현황 및 향후 예측

2.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는 관광산업의 기회이자 생존 과제

○대중관광(mass tourism)과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서로 유사

—과거 대중관광은 관광수요의 양적 확대를 의미

- 대중관광이 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(productivism)과 유사하게 환경에 부작용을 초래
- 관광지 개발, 많은 관광객과 원주민 이동은 현지 환경과 전통문화 훼손, 주민들과의 갈등 등 역기능도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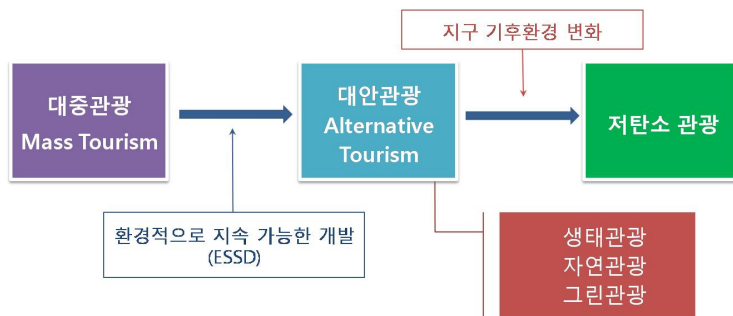
—생산중심 경제성장 모델은 환경문제의 근원

- 생산중심 성장모델은 생산 극대화를 위해 자원에 대한 과수요를 발생시키며, 지구환경에 치명적인 부산물을 내보내면서 생태계 파괴, 기후 변화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심화

○대안관광(alternative tourism)은 초기 환경주의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모델

—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문제 이슈가 확산되면서 관광분야에서도 친환경적 대안관광 개념이 등장

- 생태관광, 그린관광, 관광농업 등과 같은 친환경적 관광모델과 교육관광, 헬스관광, 체험관광과 같은 개인복지 추구형 관광모델 등이 포함되는 개념
- 이는 미시경제적으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고, 거시적으로는 친환경적인 국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등장한 관광성장 모델



〈그림 2〉 대중관광에서 저탄소관광까지 관광 패러다임 변화

- 근래의 로하스(LOHAS,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)관광은 후기 환경주의의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에 부합
 - 로하스관광은 개인의 건강(웰빙)을 생각하고 동시에 생태계 및 지구환경의 웰빙까지 고려하여 친환경적 관광과 상품을 소비하는 개념
 -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생산중심(productivism)에서 소비중심 경제성장(consumerism)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
 - 로하스란 ‘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생활스타일’을 추구하는 소비자 집단을 의미
 - 저탄소 녹색성장과 로하스관광을 잘 융합할 경우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을 창출할 가능성 증대
 - 로하스관광 패러다임은 아직은 환경주의와 후기환경주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며, 저탄소 녹색성장과 로하스관광은 서로 잘 어울리는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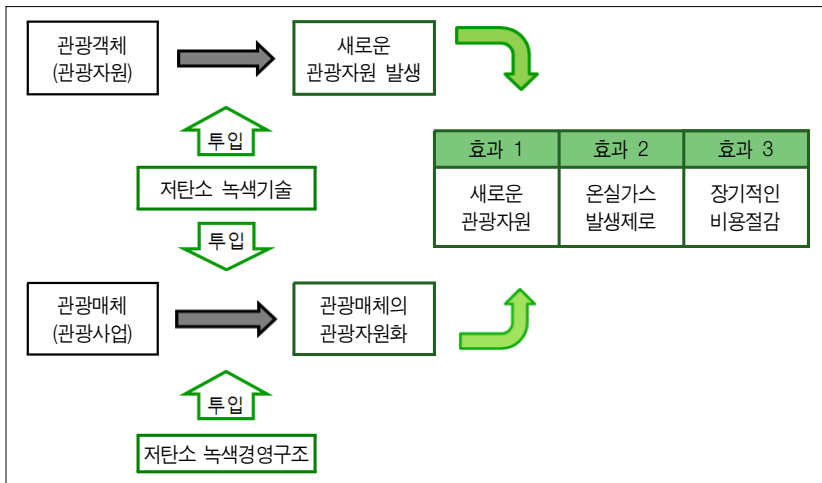
〈표 3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

Tourism	패러다임 변화	
	1980s - 2008(금융위기)	→ 금융위기 이후
핵심 개념	웰빙(Wellbeing) (물질적, 정신적, 개인적)	로하스(LOHAS) (기능적, 이타적, 사회적)
성장 모델	자연 및 문화자원 활용 - 생태 및 문화관광 - 여가 및 휴양관광	과학·기술·지식·감성자원 활용 - 지식, 첨단기술 관광 - 사회, 교육 관광 - 참여, 체험 관광
전략	새로운 관광산업 성장 전략 ⇔ 저탄소 관광산업	

3. 관광산업 신성장 모델은 결국 저탄소 관광

○저탄소 관광은 기존과 다른 관광자원 및 상품을 창출

—기존 관광이 자연 및 문화자원을 단순히 이용하는 형태라면 저탄소 관광은 저탄소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이나 상품을 이용하는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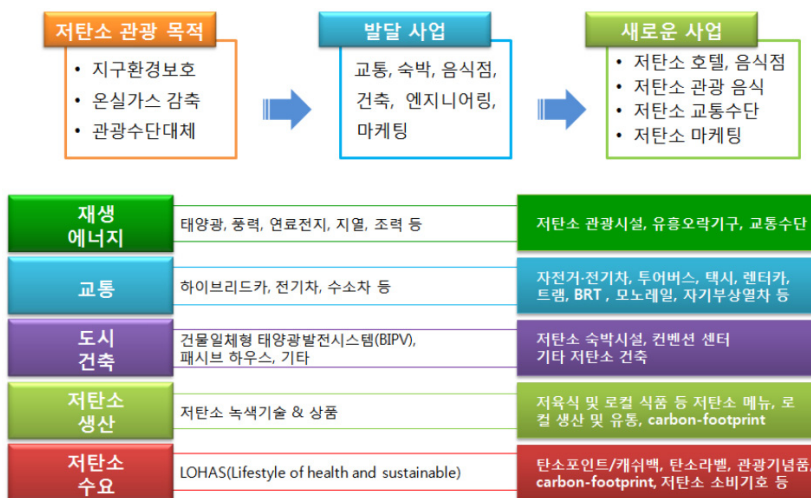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저탄소 관광산업 개념

- 저탄소 관광산업의 사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마인드가 필요
 - 매체역할을 하는 관광사업의 경우 기존에 관광객들이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저탄소 기술과 저탄소 경영마인드를 접합할 필요
 - 저탄소 관광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수단 중 하나는 녹색기술
 - 저탄소기술(low-carbon technology)을 관광에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
 - 이러한 GT(예측 기술, 에너지원 기술, 고효율화 기술, 사전예방 기술 등)에 IT·BT·CT·KS(knowledge service, 지식서비스) 등의 기술을 융합하여 적용

4. 저탄소 관광은 관광 시스템의 대변혁을 요구

- 저탄소 관광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관광요소의 변화가 필수
 - 새롭게 제시되는 저탄소 관광은 관광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에 저탄소 기술과 저탄소 경영기법 등을 적용
 - 궁극적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지구환경 위해요소들의 발생을 저감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제로가 목표
 - 저탄소 관광 시대의 관광산업은 교통, 숙박, 음식점 등 기존의 관광사업과 중첩되지만 그 형태나 요소들이 전과 다르게 교체되거나 변경
 - 종래와는 다르게 건축기술자, 엔지니어, 과학자, 경영스태프 등 이전의 간접적인 후방지원(back-of-the-office) 구성원들까지 직접적인 관광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
- 저탄소 관광 기술은 자체로 혁신적인 관광사업과 수요를 창출
 - 건축기술이나 엔지니어링 등 융합기술이 관광산업에 투입되어 기존 관광산업의 경관을 혁신적으로 변모
 - 신재생에너지는 관광활동에 필요한 탄소프리 에너지를 제공

- 저탄소 관광 교통수단을 적용할 때 기존시설 개조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교통수단으로 기존 내연기관을 교체
- 저탄소 관광 기술이 도시와 건축물을 만나면 저탄소 관광호텔, 컨벤션 시설 등이 탄생
- 이와 같은 저탄소 관광 기술은 새로운 관광사업과 수요를 창출



〈그림 4〉 저탄소 관광 비즈니스 모델

5. 저탄소 관광의 목표는 개인적이 아닌 대승적 차원

- 저탄소 관광의 목적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그 목표는 생태계보호, 온실가스 감축 등 대승적 차원
- 저탄소 관광 시대의 관광객과 사업자는 개개인의 웰빙을 우선시 하며 부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던 과거 패러다임 시대의 구성원들과 달리 지구의 웰빙을 더 생각

IV. 해외 저탄소 관광산업 사례

1. 저탄소 관광 운송수단

- 프랑스 파리의 ‘오토리브(autolib)’
 - 오토리브는 파리의 명물 ‘벨리브(Velib)’를 벤치마킹한 무인 전기자동차 대여 서비스
 - ‘오토리브’가 시민들의 자동차 소유 억제, 대기오염 개선,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
- 호주 애들레이드의 ‘틴도(Tindo)’
 - 틴도는 세계 최초의 100% 태양전지로 생산된 전기로 충전하여 운행하는 버스
 - 무료로 운행 중인 틴도는 귀뚜라미를 닮은 친근한 외관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애들레이드시의 명물
-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저탄소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추세

〈표 4〉 도심 저탄소 관광 교통수단 도입 해외사례

국가명	도시명	내용
일본	도마야현	- 이산화탄소 배출량 1/10로 줄인 경전철 도입
	후쿠오카	- 그린 시티투어버스 운행
프랑스	파리	- 무인 전기자동차 대여 시스템 ‘오토리브’ 시행 계획
덴마크	코펜하겐	- 시티 바이크 프로젝트 - 무인 자전거대여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 교통정책
미국	샌프란시스코	- 대중교통수단 100% 전기나 바이오디젤 차량으로 교체 -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‘플러그인 인프라’ 설치
	포틀랜드	- 자동차를 공동 사용하는 ‘Zipcar’ 서비스 시행 - 도심 대중교통수단인 지상전차 스트리트 카 운행 - 에어트램(air tram) 운영
호주	애들레이드	- 100% 태양열 전기 버스 ‘Tindo’ 운행

2. 저탄소 관광 도시 랜드마크

- 미국 피츠버그의 랜드마크 ‘David Lawrence Convention Center’
 - 미국 빌딩위원회(GBC)가 세계 최초로 인증한 ‘녹색건물’로 지난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그 건물과 도시의 품격을 동시에 높인 시설
-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스코니(Moscone) 컨벤션센터
 - 개빈 크리스토퍼 뉴섬(Gavin Christopher Newsom) 시장은 샌프란시스코를 케이블카보다 전기자동차가 흔한 도시, 녹색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변화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
 - 미국내 공공건물 중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갖춘 컨벤션시설
- 일본 후쿠오카의 녹색건물 ‘아크로스 후쿠오카’
 - 도심의 작은 산으로 보이는 13층 규모의 이 건물은 도심 열섬현상을 줄여 여름에 건물 수목녹음 속의 온도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15도 이상 하락
 - 이 건물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 위층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시가지와 항구까지 내려다보이는 후쿠오카의 관광명소

3. 저탄소 관광 온라인 마케팅

- 영국의 공식 관광안내 웹사이트인 ‘enjoyEngland.com’ 내에서 ‘영국의 저탄소 여행’을 안내 홍보
 - 국가나 도시 관광안내 공식 웹사이트 상에 저탄소 관광과 관련된 홍보와 안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
- 보스톤의 그린투어리즘 온라인 마케팅(www.bostongreentourism.org)
 - 관광객에게 보스톤의 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
 - 보스톤 녹색인증 호텔, 녹색음식점협회의 녹색인증 식당, 녹색인증 컨벤션센터 안내 및 홍보 등

V. 정책적 제언

1. 저탄소 관광의 조속한 산업화 추진

- 블루오션인 저탄소 관광은 시장 선점이 관건
 - 저탄소 관광은 단순 개념이나 슬로건이 아닌 현실 세계나 일상생활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

2. 저탄소 관광의 산업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

- 저탄소 기술 적용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
 - 저탄소 적용 사례를 기존 에너지 절감률과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율로 구분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
- 관광객 접객시설들을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(BIPV), 풍력, 지열 등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는 ‘저탄소 건물’로 신축 및 개축 유도
 - 개축하기엔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건물들을 저탄소 건물로 개축할 경우 허가요건을 완화해 주고 들어가는 비용에 상응하는 증축(용적률 상향 등) 허용 등으로 사업성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
- 저탄소 관광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따른 탄소 포인트/캐시백 제도 도입
- 탄소배출 제로 교통수단 보급 방안
 - 전기차나 연료전지 차량 구매 시 정부의 인센티브 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

3. 저탄소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

- 첨단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한 관광상품 개발
 -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(BIPV), 지열, 풍력 등을 이용하는 관광호텔이나 관광음식점, 컨벤션센터, 혹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자체가 저탄소 관광상품
- 서울시 관광안내 홈페이지에 ‘서울의 저탄소 녹색 투어’ 섹션 구축
- 특히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관광시설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그 자체로서 볼거리와 체험하는 관광매력을 제공
 - 기존 관광호텔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첨단 대체에너지 생산 빌딩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
-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큰 저탄소 녹색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도록 관광사업체들에 적극 홍보
 - 저탄소 녹색기술이 적용된 관광객 이용시설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 시 별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투자비 회수 기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단축